

기혼직장여성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요인: 여성가족패널 조사 7차년도(2017-2018) 자료 활용

정유림 · 한삼성*

대구한의대학교 의료경영학과, ¹대구한의대학교 보건학부

Factors Influencing Depressive Symptoms of Married Working Women: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y 2017-2018

Yu-Rim Jeong · Sam-Sung Han^{1*}

Instructor, Department of Medical Business Administration, Daegu Haany University

¹Professor, Department of Health Science, Daegu Haany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factors influencing depressive symptoms among married working women using the dataset of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y (KLoWF 7th). There were 1,030 subjects.

Methods: A multiple regression model was used to study the factors influencing depressive symptoms among married working women.

Results: The authors found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with spouse household-labor ($b=-0.606$, $p=0.022$)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married working women,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spouse ($b=-0.237$, $p<0.001$) and a negative spousal perception of working ($b=-0.709$, $p=0.045$),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excessive working hours ($b=0.397$, $p=0.027$),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emporal oppression on workload ($b=0.422$, $p=0.002$), and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workplace discrimination ($b=0.053$, $p=0.046$)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married working women.

Conclusions: This study suggests that family life and working environments are important factors for depressive symptoms in married women workers. The findings of this study will be helpful to policymakers to design plans to decrease depressive symptoms among married working women.


Key words: Depressive symptoms, family life, married working women, working environments


I. 서 론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여성 경제활동 인구 및 참가율을 살펴보면 2016년 52.2%, 2017년 52.7%, 2018년 52.9%, 그리고 2019년 53.5%로 각각 조사되었다(KOSTAT, 2021). 직장여성은 결혼 및 출산을 통해 일과 가정에서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된다.

예컨대 기혼의 직장여성은 육아에 대한 양육부담으로 경제활동을 포기하거나, 낮은 임금 및 열악한 근로조건 등이 원인이 되어 경력단절로 이어지게 된다(Lee, 2002; Kim et al., 2013). 직장여성의 경제활동 특이 점을 살펴보면 20대 후반까지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30대 이후에서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격히 하강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Kim & Jung, 2014).

*Corresponding author: Sam-Sung Han, Tel: 053-819-1802, E-mail: sshan@dhu.ac.kr
Faculty of Health Science, Daegu Haany University. 1 Haanydae-ro, Gyeongsan-si, Gyeongbuk 38610
Received: January 26, 2021, Revised: February 15, 2021, Accepted: March 4, 2021

 Yu-Rim Jeong <http://orcid.org/0000-0002-5131-948X>

 Sam-Jung Han <http://orcid.org/0000-0002-4306-6021>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기혼여성은 출산 후에 재취업을 희망하며, 대부분 정규직이 아닌 시간제 근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삶은 기혼직장여성의 가계 유지를 위한 부담감과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인해 내가 일을 하던 영역에서 살아남느냐의 문제와 연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Park & Sohn, 2014). 특히 이들은 직장 내 남성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직무 스트레스 강도는 남성 근로자들 보다 크며(Cho et al., 2013), 일과 가사노동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로는 질병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an, 2002). 이에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업무 관련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심리상담 및 코칭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서 정서적인 대응에 도움을 제공하거나(Lee et al., 2011),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모성보호제도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에도 신체적·정신적 건강, 경력단절, 그리고 저출산 등의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Jeong et al., 2018).

직장여성은 근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스스로 자아정체감 위기에 빠져 우울이나 불안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상실하게 될 위험이 크며(Kim, 2010), 특히 일과 가정의 양립에 따라 겪게 되는 이중부담이 이들에게 우울증이나 만성피로를 더 자주 경험하게 하고 있는 원인이 된다(An et al., 2016). 우리나라는 성별에 따른 역할 차이가 비교적 뚜렷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 현재까지도 여성이 가사와 양육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러한 인식은 직장을 다니는 여성에게 일과 가정생활 양립에서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며, 정신 건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Lee et al., 2013).

기혼직장여성에게 일과 가정생활에서의 이중 역할은 정서적 문제를 쉽게 동반할 수 있어, 인생의 동반자인 배우자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자 한다. 부부관계는 일차적 집단으로 가족 내 기초가 되는 인간관계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이며(Chang & Tak, 1996), 여성에게 삶의 질이나 건강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Park, 2001). 특히 과거와 달리 우리나라의 보편화된 핵가족화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여성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고려되고 있으며(Lee et al., 2015), 일과 가정의 원만한 상호작용은 기혼직장여성의 자존감을 강화시키고 정신건강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Aryee et al., 2005).

지금까지 기혼직장여성을 대상으로 한 기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감정노동(Kim et al., 2017), 경력단절과 임금(Kim, 2013), 직무만족도(Yang, 2020), 부부갈등(Lee & Choi, 2019), 가족관련 가치관(Sung & Kim, 2019)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수행되었으나 정신 건강에 대한 연구는 다소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반적으로 외부 스트레스에 의해 야기되는 반응성 우울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정도 수준이다(Birren & Schaie, 1990). 즉 일과 가정의 양립에서 오는 우울은 반응성 우울로, 근로환경 및 가정생활 특성은 기혼직장여성의 우울증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측변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Korea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KLoWF) 7차년도(2017-2018) 자료를 사용하여, 직장을 다니고 있는 기혼여성의 가정생활 특성 및 근로환경 특성을 중심으로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II.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된 여성가족패널조사(KLoWF) 7차년도(2017-2018) 자료를 활용하였다. 여성가족패널조사는 2006년 전국적으로 대표성을 갖춘 9,068가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여성 9,997명 패널로 구축하고, 2007년부터 격년 주기로 컴퓨터를 이용한 대면면접조사(Computer Aided Personal Interview, CAPI)를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패널조사 7차년도(2017-2018)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 중 타인 또는 회사에 고용되어 보수를 받는 일자리를 가진 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 항목에 무응답이 없는 1,030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연구 내용

1) 종속변수: 우울증 지수

우울증 지수는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를 10문항으로 축약한 CES-D10 설문항목으로 cesd1, cesd2, cesd3, cesd4, cesd6, cesd7, cesd9, cesd10은 ①로 응답한 경우 '0', ② 또

는 ③, ④로 응답한 경우 '1'로 환산하였다. 문항 cesd5, cesd8의 경우에는 ①로 응답한 경우 '1', ②또는 ③, ④로 응답한 경우 '0'으로 환산한 후 다음 각 응답을 모두 합산한 점수를 변수로 고려하였다. 합산한 우울증 지수는 최소 0에서부터 최대 10까지의 값을 가지며 10에 가까울수록 우울증 지수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 독립변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정생활 특성, 근로환경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연령, 학력, 미취학 자녀 유무, 초중고 자녀 유무, 주거형태, 지난해 월 평균 가구 총소득 등의 항목을 고려하였다.

가정생활 특성은 배우자 월평균 소득, 본인 가사노동 정도, 배우자 가사노동분담 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 일하는 것에 대한 배우자 인식, 일 병행으로 인한 자녀양육 부담감 등의 항목으로 고려하였다. 본인 가사노동 정도는 (1) 식사·요리준비, (2) 설거지, (3) 세탁, (4) 시장보기 및 쇼핑, (5) 집안 청소 등을 '지난 한 달 동안 어느 정도 하였습니까?'에 대한 Likert 6점 척도의 응답을 역환산하여 합산한 값으로 최소 1점부터 최대 30점까지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본인 가사노동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배우자 가사노동분담 만족도는 '남편이 설거지, 청소 등 가사노동 분담하는 정도에 대해 만족하시는 편입니까?'라는 질문에 ⑥ 해당 없음을 제외한 Likert 5점 척도의 응답을 역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 가사노동분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나는 남편과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한다.', '나는 남편과 서로 견해가 비슷하다.', '나는 남편과 부부생활(성관계)에 만족한다.', '나는 남편을 신뢰한다.'라는 질문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Likert 4점 척도의 응답을 역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일하는 것에 대한 배우자 인식 또한 Likert 5점 척도의 응답을 역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여성이 일하는 것에 대한 배우자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일 병행으로 인한 자녀양육 부담감은 '자녀양육 부담으로 인해 일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 때가 많다'로 ⑨ 해당 없음을 제외한 Likert 4점 척도의 응답을 역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힘든 것으로 해석하였다.

근로환경 특성은 고용형태, 월평균 급여,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인한 가정생활 지장 정도, 불규칙한 근로시간으로 인한 가정생활 지장 정도, 업무량에 대한 시간 압

박감, 직장 내 차별 등의 항목으로 고려하였다. 고용형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부로 Likert 2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인한 가정생활 지장 정도와 불규칙한 근로시간으로 인한 가정생활 지장 정도는 각각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와 '일하는 시간이 불규칙해서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는 Likert 4점 척도 문항의 응답을 역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생활 지장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업무량에 대한 시간 압박감은 '일이 많아 항상 시간에 쫓기며 일한다.'는 Likert 4점 척도 문항의 응답을 역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업무량에 대한 시간적 압박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직장 내 차별은 '사람을 뽑을 때 비슷한 조건이면 여자보다 남자를 더 선호하는 편이다.', '경력이 같거나 비슷해도 남자직원이 여자직원보다 승진이 빠른 편이다.', '직급이 같거나 비슷해도 남자직원의 월급이나 수당이 여자직원보다 많은 편이다.', '남자직원이 하는 일과 여자직원이 하는 업무가 고정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구분되어 있다.', '비슷한 업무를 해도 남자직원이 여자직원보다 교육이나 연수받을 기회가 더 많다.', '구조조정을 할 경우에 남자직원보다 여자직원이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 등의 차별사항에 대한 6개 문항의 Likert 4점 척도의 응답을 역환산하여 합산한 값으로 최소 6점부터 최대 24점까지 분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직장 내 차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연구 방법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가정생활 특성, 근로환경 특성에 따른 우울증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 및 분산분석법(ANOV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산분석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Scheffe 방법을 적용하여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속형으로 측정된 본인 가사노동 정도, 배우자와의 관계, 일 병행으로 인한 자녀양육 부담감,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인한 가정생활 지장 정도, 불규칙한 근로시간으로 인한 가정생활 지장 정도, 업무량에 대한 시간 압박감, 그리고 직장 내 차별 등과 우울증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법을 실시하였다. 한편 고려된 독립변수들을 보정한 후 기혼직장여성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통계적 분석은 SPSS PASW 18 program을 이용

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α)은 5%로 고려하였다.

III. 결 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증 지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증 지수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우울증 지수는 최고 10점 중 평균 2.29점으로 조사되었다. 학력, 미취학 자녀 유무, 취학 자녀 유무, 주거형태 등에 따른 우울증 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력의 경우 '고졸 이하'의 우울증 지수는 2.37점, '4년제 대졸 이상' 2.25점, '전문대졸' 2.22점 순으로 조사되었다($p=0.768$). 미취학 자녀 유무는 '무' 2.34점, '유' 2.12점으로 나타났다($p=0.298$). 취학 자녀 유무는 '유' 2.33점, '무' 2.04점으로 조사되었다($p=0.275$). 주거형태의 경우 '월세 및 기타' 2.7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가' 2.22점, '전세' 2.17점 순이었다($p=0.076$). 한편, 연령에 따른 우울증 지수는 '50대 이상'이 2.99점, '40대' 2.23점, '30대 이하' 2.20점 순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우울증 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p=0.044$). 가구소득에 따른 우울증 지수는 '5,000 미만' 2.72점, '6,000-6,999' 2.43점, '5,000-5,999' 2.36점, '7,000 이상' 1.75점 순으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우울증 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p<0.001$).

2. 가정생활 특성에 따른 우울증 지수

가정생활 특성에 따른 우울증 지수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배우자 월평균 소득에 따른 우울증 지수는 '200만원 이하' 2.62점, '201-300만원' 2.53점, '301-400만원' 2.10점, '401-500만원' 1.81점, '501만원 이상' 1.73점 순으로 배우자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우울증 지수가 높은 경향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14$). 본인 가사노동 정도에 따른 우울증 지수는 양의 상관성이 추정되어 지난 한 달 동안 본인의 가사노동 정도가 높을수록 우울증 지수가 증가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05$). 배우자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에 따른 우울증 지수는 '만족한다.' 3.07점, '보통이다' 2.43점, '만족

Table 1. The Depressive symptoms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Depression	p
Total		1,030		
Age	≤30	282	2.20±2.86 [†]	0.044
	40	651	2.23±2.84 [*]	
	≥50	97	2.99±3.32 [†]	
Education	≤High school	413	2.37±2.93	0.768
	College	261	2.22±2.88	
	≥Graduate	356	2.25±2.88	
Preschool child	Yes	240	2.12±2.89	0.298
	No	790	2.34±2.90	
School-aged child	Yes	890	2.33±2.89	0.275
	No	140	2.04±2.96	
Residential patterns	Homeowner	722	2.22±2.85	0.076
	Chonsei	162	2.17±2.94	
	Monthly rent and other	146	2.79±3.07	
Household income(10,000won/last year)	< 5,000	316	2.72±3.09 [*]	<0.001
	5,000-5,999	185	2.36±2.85 [†]	
	6,000-6,999	200	2.43±3.02 [†]	
	≥7,000	329	1.75±2.57 [†]	

[†] The same letter indicate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by Scheffe's multiple comparison

Table 2. The Depressive symptoms according to family life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Depression	p
Spouse salary(10,000 won/mon)	≤200	118	2.62±3.02 ^{†‡}	0.014
	201-300	295	2.53±3.06 ^{†‡}	
	301-400	287	2.10±2.66 [†]	
	401-500	146	1.81±2.73 [‡]	
	≥501	103	1.73±2.54 [‡]	
Degree of household-labor		1,030	0.087 [*]	0.005
Satisfaction of spouse household-labor	Satisfaction	196	3.07±3.04 [†]	<0.001
	Common	393	2.43±3.11 [‡]	
	Dissatisfied	441	1.82±2.54 [§]	
Relationship with spouse		1,030	-0.232 [*]	<0.001
Spouse perception of working	Disagree	90	3.33±3.17 [†]	<0.001
	Neutral	165	2.73±3.04 [†]	
	Agree	775	2.08±2.80 [‡]	
Parenting burden		1,030	0.099 [*]	0.001

^{†‡§} The same letter indicate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by Scheffe's multiple comparison

^{*}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Degree of household-labor and Relationship with spouse and Parenting burden

하지 않는다.' 1.82점 순으로 배우자의 가사노동 분담에 따른 만족도가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우울증 지수가 높은 경향이였다(p<0.001). 배우자와의 관계에 따른 우울증 지수는 음의 상관성이 추정되어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우울증 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p<0.001). 일하는 것에 대한 배우자 인식에 따른 우울증 지수는 '반대한다.' 3.33점, '보통이다' 2.73점, '찬성한다.' 2.08점 순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 배우자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우울증 지수가 높은 경향이였다(p<0.001).

일 병행으로 인한 자녀양육 부담감에 따른 우울증 지수는 양의 상관성이 추정되어 가사와 일 병행으로 인한 자녀양육 부담감이 높을수록 우울증 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3. 근로환경 특성에 따른 우울증 지수

근로환경 특성에 따른 우울증 지수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Table 3과 같다. 고용형태에 따른 우울증 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인 경우 우울증 지수는 2.48점, 정규직 2.15점

Table 3. The Depressive symptoms according to working environment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Depression	p
Employment status	Regular	582	2.15±2.77	0.074
	Non-regular	448	2.48±3.05	
salary(10,000 won/mon)	≤100	182	2.26±2.86 ^{†‡}	0.008
	101-200	573	2.51±3.04 [†]	
	≥201	275	1.85±2.56 [‡]	
Excessive working hours		1,030	0.140 [*]	<0.001
Irregular working hours		1,030	0.120 [*]	<0.001
Temporal oppression on workload		1,030	0.137 [*]	<0.001
Work place discrimination		1,030	0.133 [*]	<0.001

^{†‡} The same letter indicate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by Scheffe's multiple comparison

^{*}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Degree of household-labor and Relationship with spouse and Parenting burden

Table 4. Effects of the Depressive symptoms

Characteristics	Categories	Depression			
		B	β	t	P
Age	$\leq 30^*$				
	40	0.002	0.001	0.007	0.994
	≥ 50	0.451	0.047	1.153	0.249
Education	\leq High school*				
	College	0.039	0.006	0.166	0.869
	\geq Graduate	0.345	0.058	1.486	0.138
Preschool child	Yes*				
	No	0.081	0.012	0.246	0.805
School-aged child	Yes*				
	No	0.143	0.017	0.359	0.720
Residential patterns	Homeowner*				
	Chonsei	-0.160	-0.020	-0.630	0.529
	Monthly rent and other	0.044	0.005	0.158	0.874
Household income(10,000won/last year)	$< 5,000^*$				
	5,000-5,999	-0.306	-0.041	-1.077	0.282
	6,000-6,999	0.214	0.030	0.704	0.481
	$\geq 7,000$	-0.237	-0.039	-0.684	0.494
Spouse salary(10,000 won/mon)	$\leq 200^*$				
	201-300	0.190	0.031	0.593	0.554
	301-400	-0.150	-0.024	-0.426	0.670
	401-500	-0.122	-0.015	-0.290	0.772
	≥ 501	-0.447	-0.049	-0.949	0.343
Degree of household-labor		0.039	0.042	1.264	0.207
Satisfaction of spouse household-labor	Satisfaction*				
	Common	-0.190	-0.032	-0.738	0.461
	Dissatisfied	-0.606	-0.105	-2.287	0.022
Relationship with spouse		-0.237	-0.144	-4.250	< 0.001
Spouse perception of working	Disagree*				
	Neutral	-0.311	-0.040	-0.796	0.426
	Agree	-0.709	-0.107	-2.007	0.045
Parenting burden		0.077	0.021	0.557	0.578
Employment status	Regular*				
	Non-regular	0.163	0.028	0.770	0.442
Salary(10,000 won/mon)	$\leq 100^*$				
	101-200	0.021	0.004	0.077	0.939
	≥ 201	-0.169	-0.026	-0.477	0.634
Excessive working hours		0.397	0.101	2.217	0.027
Irregular working hours		-0.177	-0.044	-0.988	0.324
Temporal oppression on workload		0.422	0.104	3.112	0.002
Work place discrimination		0.053	0.068	1.998	0.046
F-value		4.082			
P-value		< 0.001			
Adjusted R ²		0.086			

* Reference category

으로 조사되었다($p=0.074$). 한편, 본인 월평균 소득에 따른 우울증 지수는 '100만원 이하' 2.26점, '101-200만원' 2.51점, '201점 이상' 1.85점 순으로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우울증 지수가 높은 경향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08$).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인한 가정생활 지장 정도에 따른 우울증 지수는 양의 상관성이 추정되어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가정생활에 지장이 높을수록 우울증 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p<0.001$). 불규칙한 근로시간으로 인한 가정생활 지장 정도에 따른 우울증 지수 또한 양의 상관성이 추정되어 불규칙한 근로시간으로 가정생활에 지장이 높을수록 우울증 지수가 높아졌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001$). 업무량에 대한 시간 압박감에 따른 우울증 지수 역시 양의 상관성이 추정되어 업무량에 대한 시간 압박감을 느낄수록 우울증 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p<0.001$). 그리고 직장 내 차별에 따른 우울증 지수도 양의 상관성이 추정되어 직장 내 차별을 겪은 경우 우울증 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p<0.001$).

4. 기혼직장여성의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혼직장여성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적합된 선형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4.082$, $P<0.001$), 고려된 독립변수들은 종속변수인 우울증 지수의 변동을 약 8.6%정도 설명하였다($R^2=0.086$). 독립성 충족 여부는 Durbin-Watson 값이 1.972로 독립성이 만족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VIF(분산팽창요인)는 10 이상, TOL(공차한계)은 0.1 이하면 다중공선성을 의심해야 하는데, 본 연구는 VIF값이 최대 3.394, TOL값이 최하 0.294로 다중공선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기혼직장여성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는 고려된 변수들 중 배우자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만족함 vs 만족하지 않음 : $B=-0.606$, $p=0.022$), 배우자와의 관계($B=-0.237$, $p<0.001$), 일하는 것에 대한 배우자 인식(반대 vs 찬성 : $B=-0.709$, $p=0.045$),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인한 가정생활 지장 정도($B=0.397$, $p=0.027$), 업무량에 대한 시간 압박감($B=0.422$, $p=0.002$), 직장 내 차별($B=0.053$, $p=0.046$)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배우자의 가사노동 분담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일하는 것에 대한 배우자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우울증 지수가 감소하였으

며,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인해 가정생활에 지장을 느끼고, 업무량에 대해 시간 압박감과 직장 내 차별을 느낄수록 우울증 지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설명변수들이 우울증 지수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정도를 보기 위해 변수들의 표준화 회귀계수(β)를 살펴보았다. 배우자와의 관계($\beta=-0.144$), 일하는 것에 대한 배우자 인식(반대 기준 : 보통 $\beta=-0.040$, 찬성 $\beta=-0.107$), 배우자 가사노동분담 만족도(만족 기준 : 보통 $\beta=-0.032$, 만족하지 않음 $\beta=-0.105$), 업무량에 대한 시간 압박감($\beta=0.104$),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인한 가정생활 지장 정도($\beta=0.101$), 그리고 직장 내 차별($\beta=0.0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IV. 고 찰

기혼직장여성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정생활 특성에서는 배우자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 근로환경 특성에서는 일하는 것에 대한 배우자 인식,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인한 가정생활 지장 정도, 업무량에 대한 시간 압박감, 그리고 직장 내 차별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배우자의 가사노동 분담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경우 우울증 지수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가사노동 양과 시간의 분담에 초점을 두기보다 배우자와의 원활한 상호 관계에서 접근하는 것이 기혼직장여성의 우울증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Ho et al., 2015). 반대로 가사노동을 많이 하는 남편일수록 직업이 없거나 일용직 노동자인 경우로 시간적 여유가 많아 여성의 우울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와 비교 해석할 수 있겠다(Lee et al., 2015). 또한 배우자와의 관계는 좋을수록, 일하는 것에 대한 배우자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우울증 지수가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배우자와의 관계 및 지지의 경우 여성에게 가장 필요한 사회적 지지의 주요 원천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Ha & Kwon, 2006), 배우자 지지가 높은 경우 정신건강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Jeong et al., 2018).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인한 가정생활 지장 정도가 크고, 업무량에 대한 시간 압박감이 높으며, 직장 내 차별을 겪은 경우에 기혼직장여성의 우울증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열악한 근무조건이나 근로환경은 여성 근로자의 건강에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

다(Kim et al., 2003). 특히 여성 근로자에게 있어, 가정생활에서의 시간 부족은 아내와 부모로서의 역할 부담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Heo et al.(2020)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근로시간의 유연화가 기혼직장여성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보호요인임을 알 수 있다.

우울증에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인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 정도를 확인한 결과, 그 영향력의 정도에서 배우자와의 관계, 일하는 것에 대한 배우자 인식, 그리고 배우자 가사노동분담 만족도 등의 가정생활 특성이 업무량에 대한 시간 압박감,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인한 가정생활 지장 정도, 그리고 직장 내 차별 등의 근로환경 특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기혼직장 여성의 우울증을 완화시키고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반드시 배우자로부터의 적극적인 지지와 원활한 상호관계가 동반될 수 있는 정책적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고려된 독립변수들 중 가정생활 특성에서는 배우자 월평균 소득, 본인 가사노동 정도, 배우자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 일하는 것에 대한 배우자 인식, 그리고 일 병행으로 인한 자녀양육 부담감이 우울증 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우울증 지수가 감소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교문화에 영향을 받아 남성 중심적인 가족생활 형태와 남녀 간의 역할 차이가 여전히 뚜렷하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유추해 볼 수 있다(Han et al., 2014). 즉, 경제활동을 하는 남편은 가장으로서의 역할수행을 통해 기혼직장여성의 역할 양립 중 경제적인 부담에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며, 우울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 본인의 가사노동 분담 정도가 많은 경우와 일 병행으로 인한 자녀양육 부담감이 높을수록 우울증 지수가 증가하였다. 기혼직장여성의 경우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인한 이중 역할 및 부모의 보살핌과 끊임없는 주의가 요구되는 자녀양육을 고려해 볼 때, 직장 및 가정생활에서의 시간 부족, 경제적 부담감, 그리고 사회적 고립감 등이 강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고 이는 우울증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유추해 볼 수 있겠다.

고려된 독립변수들 중 근로환경 특성에서는 본인의 월평균 급여,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인한 가정생활 지장 정도, 불규칙한 근로시간으로 인한 가정생활 지장 정도, 업무량에 대한 시간 압박감, 그리고 직장 내 차별이 우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기혼여성은 시간제 근무라는 비정규직 테두리 안에서 고용불안, 직무 스트레스 등 불리한 조건으로 인한 우울을 호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며(Park & Oh, 2018), 여성은 직장 업무 이외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역할 수행으로 심리적 부담이 높고(Ogiware, 2008), 남성 근로자에 비해 더 큰 고용형태 변동을 경험하기 때문에 주관적 건강수준이 낮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Park et al., 2007). 따라서 조직적 차원에서는 분위기 조성 및 사회적 지지 강화 프로그램 등의 노력과 직장 내 차별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Shin, 2017).

최근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협조를 받아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의 '경력단절 여성 현황' 자료와 국가통계포털, 기타 기초자료 등을 활용하여 분석한 자료에서, 우리나라의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 비율이 2017년 19.5%, 2018년 20.7%, 그리고 2019년 20.7%로 조사되었고, 특히 2020년에는 22.2%로 나타나, COVID-19에 따른 기혼 비취업여성 규모 증가 및 취업여성 감소 등 고용위기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MOGEF, 2020).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정책을 대폭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경력단절 위기 상황에서 재직여성들이 이탈되지 않도록 임신부터 복귀까지 생애주기별 경력단절 예방서비스를 확대 지원할 계획임을 알렸다(MOGEF, 2020). 이와 같은 움직임은 여성의 지속적인 노동공급 증가를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함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여성 근로자들의 건강증진도 함께 동반되어 정책적으로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 설계가 횡단면 연구로 진행되어 기혼직장여성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력을 직접적인 원인-결과(causality) 관계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2차 자료분석 연구로 기 조사된 설문 문항을 이용하여 변수를 선정하였으므로 단일 문항 측정 변수의 경우 변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어 결과 해석에 다소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표성이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 결과를 사회학적 관점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에 의의가 있다.

V. 결 론

우리나라 기혼직장여성의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변량 분석한 결과 배우자 가사노동 부담 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 일하는 것에 대한 배우자 인식,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인한 가정생활 지장 정도, 업무량에 대한 시간 압박감, 그리고 직장 내 차별 등이 우울증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기혼 직장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 제고를 위해 기업에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유연성 확보를 포함한 모성보호제도와 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사회와 정부에서는 근로환경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하겠다.

References

- An YS, Kim HJ, Lee HJ, Ha YJ. The Factors influencing Mental Health of Married Career Women: Focusing on the Sociodemographic Factors, Home Factors, Office Workers. *J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016;7(1):157-186 (<http://doi.org/10.22143/HSS21.7.1.9>)
- Aryee, S, Srinivas, E.S, Tan, H.H. Rhythms of life: Antecedents and outcomes of work-family balance in employed parents. *J Applied Psychology* 2005;90(1):132-146
- Birren J.E, Schaie K.W.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Aging*, San Diego. Academic Press; 1990. p. 48-56
- Chang SB, Tak TR. Role Expectation on Spouse of Married Women in Korea. *J Women Health Nurs* 1996; 2(1):36-46
- Ha OR, Kwon JH. Mental health and role satisfaction of working mothers: Role conflict, perfectionism, and family/spouse support. *Kor J Clin Psychol* 2006; 25(3):675-696
- Han SS, Jeong SH, Kang SW, Yoo WK.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Among Middle and Old-Aged People. *The Kor Society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2014;8(2):197-208
- Han YM. The existence of musculoskeletal symptoms to women workers engaged in automotive part manufacturing industry, its related factors. Graduate school of Dankook University, Seoul; Dankook University Press; 2002. p. 1-3
- Heo NC, Jeong YR, Han SS, Jeong SH. The Association between Working Environments and Parenting Burden in Women Workers. *J Health Info Stat* 2020;45(3):296-301 (<http://doi.org/10.21032/jhis.2020.45.3.296>)
- Ho YJ, Oh YA, Lee MS. The Effects of Childcare Type and Sharing Housework on Depression Level among the Married Women. *KPHA* 2015;41(2):77-87 (<http://doi.org/10.22900/kphr.2015.41.2.007>)
- Im JH. Female workers' stress from nurturing with preschool children. *Jour. of KoCon.a* 2014;14(5): 132-143 (<http://doi.org/10.5392/JKCA.2014.14.05.132>)
- Jeong YR, Jeong SH, Han SS. The Relationship between Husband Support and Depression in Korean Married Women: The mediation Effects of Connubial Bliss. *Jour. of KoCon.a* 2018;18(12):263-271 (<http://doi.org/10.5392/JKCA.2018.18.12.263>)
- Jeong YR, Jeong SH, Han SS. Factors Influencing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Women Workers. *J Korean Soc Occup Environ Hyg* 2018; 28(1):117-123 (<http://doi.org/10.15269/JKSOEH.2018.28.1.117>)
- Kim EJ, Yoon JY. Effects of emotional labor and workplace violence on physical and mental health outcomes among female workers: The 4th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Korean J Occup Health Nurs* 2017;26(3):184-196 (<http://doi.org/10.5807/kjohn.2017.26.3.184>)
- Kim HY. The effect of married woman's job stress on the marriage satisfaction. Graduate school of Donga University. Seoul; Donga University Press; 2010. p. 4-11
- Kim JB, Lee KJ, Park JA, Han SH. The Affecting Factors on Health Status among Selected Female Labor Workers. *J Korean Soc Occup Environ Hyg* 2003; 13(2):164-171
- Kim JH. Cause and Consequence of Career Interruption Among Female Workers. *Korean Association for Political Economy* 2013;-(41):97-127 (<http://doi.org/10.17964/rses/2013.41.97>)
- Kim SE, Yoon YS, Yang YJ, Lee ES, Lee JH, Kim DJ. The effect of non-regular employment on the health behaviors, mental health and quality of life: Data form the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3. *Korean J Str Res* 2016; 24(3):127-136 (<http://doi.org/10.17547/kjsr.2016.24.3.127>)
- Kim SW, Jung SH. The study on shifting contingent employment of married women into permanent employment position. *Public Policy Rev* 2014;28(2): 27-48 (<http://doi.org/10.17327/ippa.2014.28.2.002>)
- Lee HJ, Seo EK, Jeong YR, Nam IS, Han SS. Effects of Family Support on Depression among Married Working Women. *The Korean J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2015;9(2):69-72 (<http://doi.org/10.12811/kshsm.2015.9.2.069>)
- Lee HS. Changes in labor market environment and their

- impact on structural changes in the labor market. Korean Econ Rev 2002;50(1):9-274.
- Lee KJ.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networks and degree of support on parenting stress and depression in mothers of developmental delay children. K.J.F.W 2008;13(1):43-61
- Lee OI, Park EY, Hong JY.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life and occupational stress among teachers. The Korean J of Visual Impairment 2011;27(3):33-51
- Lee SY, Choi IR, Kim EY. Factors affecting psychological well-being of employed women with pre-school children. JKDAS 2013;15(4):2069-2084
- Lee YJ, Choi 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rital Conflicts of Married Woman and Depressive Symptoms : MultiMediated Effects of Achievement-Oriented Dysfunctional Attitude and Sociotropy Dysfunctional Attitude. JFBL 2019;37(1):85-98 (<http://doi.org/10.7466/JKHMA.2019.37.1.85>)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vailable from: URL: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8988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vailable from: URL: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9050
- Ogiwara C, Tsuda H, Akiyama T, Sakai, Y. Gender-related stress among Japanese working women. Transcultural Psychiatry 2008;45(3):470-488 (<http://doi.org.10.1177/1363461508094677>)
- Park BH, Oh YJ. The Association between Working Condition with Depression among Wage Workers. Korean Association of Health and Medical Sociology 2018;0(47):31-56 (<http://doi.org.10.21489/hass.2018.04.47.31>)
- Park EO. The Influencing Factors on the Quality of Marital Role of Married, Working Women in Korea. J Women Health Nurs 2001;7(1):80-92
- Park JW, Han YJ, Kim SS. Health Inequity among Waged Workers by Employment Status. J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2007;40(5):388-396
- Shin SJ. A Consideration on Epidemiology of Female Workers' Depression. The J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017;8(4):1027-1042 (<http://doi.org/10.22143/HSS21.8.4.52>)
- Statistics Korea.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Available from: URL: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72
- Sung JH, Kim CK. The mediation effects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conflicts on the influence of family value orientations to depression of working women: Longitudinal mediation analysis using multivariate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and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The Women's Studies 2019;101(2):111-133 (<http://doi.org/10.33949/tws.2019.101.2.004>)
- Yang HM. How work environment, work-family conflict, and job satisfaction are relevant to the self-rated health of married working women. The Women's Studies 2020;105(2):105-131 (<http://doi.org/tws.2020.105.2.004>)

<저자정보>

정유림(강사), 한삼성(교수)